

남편의 가정내 역할인지와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Husband's Role Recognition and Role Performance in Family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사 孫維基

교수 李貞珩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 student: You ki Sohn

Prof.: Jeong Woo Lee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논의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be the role recognition and role performance of husbands in family and to find out the variables which influence role recognition and role performance.

The samples were selected from 503 husbands with children more than one living in Seoul.

The major findings were: 1)husbands' role recognition was relatively higher than role performance. 2)Influential variables on the husbands' role recognition were the degree of home-orientedness, communication-satisfaction and stage of life cycle. 3) Husbands' role performance was affected by communication-satisfaction, degree of social support, job satisfactions, sex-role attitudes, flexibility of job, and husbands' role recognition.

I. 서론

우리나라 남편의 경우 전형적인 가부장적 이데올

로기의 영향을 받아 생계부양을 위한 활동을 일차적인 역할로 간주하여 가정내 다양한 역할들을 등한시 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가정은 가정생활주기의 단축, 자녀수의 감소, 부부중심의 핵가족화 등 서구의 가정유형과 유사한 외형적 변화가 있었으며,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로 여성의 경제력이 향상됨에 따라 부인이 가정내에서 많은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서 부인의 가정내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여권론적 의식의 영향으로 평등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전형적인 성역할 구조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면서 성별에 따른 역할분리가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회변화로 인하여 남편에게는 생계부양자라는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뿐만 아니라 가정내 다양한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기대가 확산되었다. 따라서 성에 따른 역할차이는 그 사회의 가치의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변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남편의 역할도 그 기대나 수행 혹은 인지의 양상이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유영주, 1992). 즉 상당수의 남편들이 가정의 경제적 부양에 대한 책임만을 그들에게 부여해온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점차적으로 직업과 가족에 대한 책임을 함께 공유하는 '대칭적인 가족(symmetrical family)'(Elliot, 1993; 한경해, 1995 재인용)을 지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남편들은 이성적으로는 자신들이 과거 여성의 일로 규정되었던 역할을 융통성 있게 받아들일려고 하지만 동시에 내면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을 기대하는데서 오는 긴장감과 갈등을 갖고 있다(김용호, 1990). 즉 전통적인 역할구분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으나, 새로운 평등주의적 역할공유의 형태는 아직 정착되지 않은 과도기적 현상으로 말미암아 부부간의 역할갈등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역할갈등은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남편이 가정내 역할을 실제로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남편의 역할인지와 그 수행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탐색·제시한다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으리라 본다.

그런데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남편의 가정내 역할에 관한 실태조사와 부부간 역할구조(한남제, 1984; 신혜섭, 1985; 이성희, 1986; 김효숙, 1988;

이성희·김태현, 1989), 그리고 부부간의 역할기대와 수행에 관한 연구(김순주, 1994; 이윤미, 1995)가 대부분이었다. 부언하면 남편의 역할과 관련된 연구들은 개인의 가치관, 태도, 의사소통만족도 등의 사회·심리적 측면이 간과되어 있었다. 특히 남편의 경우 그의 직업구조가 가정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제한(Elliot, 1993)하기 때문에 남편의 가정내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직업구조와 가정내 역할관계를 다룬 심층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급변하는 사회구조에서 남편의 가정내 역할인지와 역할수행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와 더불어 다각적인 시각에서 남편의 가정내 역할인지와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남편의 가정내 역할인지에 대한 변화를 유도하고, 남편의 가정내 역할수행을 고무함으로써, 역할공유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남편들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시키고, 보다 행복하고 기능적인 가정생활을 이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역할인지

남편의 가정내 역할인지에 관한 김효숙(1988)의 연구에 의하면 남편은 생계담당자, 경제활동, 여가활동, 청년기 자녀의 사회화, 아동기 자녀의 교육, 대외활동, 유아기 자녀의 양육, 가사활동 역할영역의 순으로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였다. 김순주(1994)는 남편의 가정내 역할을 배우자 역할, 부모 역할, 대외적 역할, 가사분담자 역할, 가계경제관리 역할, 부양자 역할의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남편은 부양자 역할을 가장 높게 인지하였으며, 가사분담자 역할을 가장 낮게 인지하였다. 한편 박진옥(1994)은 남편의 가정내 역할을 가사, 자녀양육 및 교육, 대외활동, 경제활동, 여가활동, 정서영역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남편은 간단한 집수리, 주된 경제수입자

역할을 자신의 역할로 인지하였으며, 취사와 세탁영역을 아내의 역할로 인지하면서도, 힘든 세탁업무나 간단한 조리업무에 대해서는 자신의 역할참여 가능성을 다소나마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남편들은 생계와 관련된 부양자 역할을 자신의 역할로 높게 인지한 반면,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이라고 규정된 가사영역은 낮게 인지하였으며 그외의 가정내 역할은 점차 부부공동의 역할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역할수행

한남제(1984)는 남편의 가정내 역할을 집안청소, 식사준비, 짐수리, 자녀의 학습지도, 자녀의 건강관리, 금전관리, 경제수입, 친척집 방문, 이웃사귀기의 9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남편이 가장 높게 수행하는 역할은 경제수입이었고, 가장 낮은 수행을 보인 역할은 가사영역이었으며 자녀교육, 사교적 역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도시부부 가족에서 부부가 수행하는 역할은 완전히 서구적 유형도 아니며 종래 대로의 전통적인 유형도 아니라고 하였다. 신혜섭(1985)은 남편의 역할을 수단적 자녀돌보기, 표현적 자녀돌보기, 가사, 가계관리, 가족화합 및 유지의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는데 이중 남편이 가장 많이 수행하는 역할은 표현적 자녀돌보기였으며, 남편이 가장 적게 수행하는 역할은 빨래나 다림질, 음식만들기나 설거지 등이었다.

또한 홍성례(1995)는 30대 남편의 역할수행을 배우자 역할, 부모 역할, 친족 역할, 가사분담자 역할, 가계경제관리 역할, 부양자 역할, 대외적 역할 등의 7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가장 많이 수행하는 역할은 부양자 역할과 친족역할이었으며, 적게 수행하는 역할은 대외적 역할과 가사분담자 역할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남편의 실제 역할수행은 전통적인 성별분리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옥선화(1993)는 점차 평등주의 가치관의 확산과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인해 성별분리에 의한 역할분담보다는 역할공유를 선택하고, 남녀 모두가 양성성을 지향함으로써 가정

내 역할구조가 재편성 되어가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남편의 가정내 역할을 배우자 역할, 부모 역할, 친족 역할, 가사분담자 역할, 가계경제관리자 역할, 부양자 역할 등 6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3. 관련변인 고찰

1) 가족관련 변인

(1) 교육수준

교육수준에 따른 남편의 역할인지를 살펴보면,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 의식을 가지고(최규련, 1985) 부인의 직업이나 생활을 존중해 주게 되므로 부부공동의 역할인지를 보인다고 하였다(정진희, 1990).

한편 교육수준에 따른 남편의 역할수행을 살펴보면, 김정자(1989)의 연구에서 남편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편 역할, 대외적 역할, 경제적 역할을 높게 수행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Clark 등(1978)은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내 역할수행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현아(1994)의 연구에서도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남편의 가정내 역할을 소득자원으로 대신하게 되고, 부인이 남편에게 가정내 역할수행을 덜 기대하게 되므로 실제적인 남편의 가정내 역할수행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2) 자녀수

자녀수에 따른 남편의 가정내 역할인지에 관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한편 자녀수에 따른 남편의 역할수행에 관하여 살펴보면, 홍성례(1995)의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남편의 가정내 역할수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Wheeler와 Arvey(1981)의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가정내 역할수행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정생활주기

가정생활주기는 남편의 연령을 반영하며 첫자녀 연령과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이를 통해 가정생활주기가 남편의 가정내 역할인지와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남편의 역할인지를 살펴보면, 김효숙(1988)의 연구에 의하면 남편은 연령이 낮을수록 가사활동과 경제활

동영역을 어느정도 부부 공동의 역할영역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생활주기가 남편의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들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줄어들며(Barnett과 Baruch, 1987), 가사분담자 역할수행도 줄어든다고 하였다(Rexroat와 Shehan, 1987). 그러나 가정생활주기가 가사분담자 역할수행에 영향 요인이 아닌 것으로 조사된 연구도 있다(Ross, 1987).

(4) 월소득

월소득과 남편의 역할인지와의 관계를 보면, Brines(1994)는 부부의 가사노동패턴에 관한 연구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부부의 공평한 역할인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권희완(1992)은 월소득이 높을수록 남편은 부양자 역할을 높게 인지한다고 하였다.

한편 월소득에 따른 남편의 역할수행을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남편의 가사분담자 역할수행이 낮게 나타났는데(Birds, 1984), 이는 재정적 자원이 많을수록 가사노동 사회화를 촉진시켜 가사분담자 역할수행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미란(1985)과 이화진(1995)은 소득이 높을수록 아버지 역할수행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5) 가족형태 · 가사조력자 유무

가족형태에 따른 남편의 역할수행을 살펴보면, 핵가족일 경우 남편의 가사분담자 역할수행이 높고 시부모와 동거하는 집단의 경우 남편의 수행이 낮았다(이연숙 외 3인, 1991; 이미숙, 1995). 김미하(1992)의 연구에서도 핵가족내에서 자녀양육에 남편 참여가 증가되었다고 하였다. 반면에 김정자(1989)와 홍성례(1995)의 연구에서는 가족형태에 따른 남편의 역할수행 정도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사조력자 유무에 따른 남편의 역할수행을 살펴볼 때, 김정자(1989)의 연구에서 남편은 가정부가 없는 경우에 가사분담자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 · 심리적 변인

(1) 가정지향성

한경혜(1995)는 생의 목표나 성공을 직업에서의 성공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가정내 역할도 마찬가지로

비중으로 중요시한다는 논의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고 하면서, 가정지향성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이 직장일 때문에 가정일에 소홀한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Pleck(1985)은 남편의 가정내 역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편들이 가정내 역할에 참여하고 싶어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남편의 가정지향성이 가정내 역할인지와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지지 정도

사회지지 정도에 따른 남편의 가정내 역할인지에 관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한편 사회지지 정도와 남편의 역할수행의 관계를 살펴보면, Pleck(1985)은 남편의 가정내 역할을 촉진시키기 위한 요인으로 사회지지를 들었다. 홍성례(1995)의 연구에서도 사회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남편이 가정내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한다고 하였다.

(3) 성역할 태도

성역할 태도에 따른 남편의 역할인지를 살펴보면, 박진옥(1994)의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남편일수록 가사와 부모역할, 여가활동, 정서영역에서 역할을 낮게 인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성역할 태도에 따른 남편의 역할수행을 살펴보면,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성역할 태도가 부부의 역할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erry-Jenkins와 Crouter, 1987; Blair와 Lichter, 1991; Presser, 1994). 즉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보이는 남편일수록 가사분담자 역할을 높게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rnett과 Baruch, 1987; Ross외 1987; Mederer, 1993; Katzev와 동료들, 1994; Greenstein, 1996; 이성희 · 김태현, 1989; 안병철, 1990; 허경옥, 1994; 박진옥, 1994; 이미숙, 1995).

(4) 의사소통만족도

의사소통만족도에 따른 남편의 역할인지를 살펴보면, 정진희(1990)의 연구에서는 부부간 의사소통만족도가 전체적인 가정내 역할인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사소통만족도에 따른 남편의 역할수행을 살펴보면, 장병옥(1997)의 연구에서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남편이 역할수행을 잘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진희(1990)는 부부간 의사소통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 영역, 자녀양육 및 교육 활동영역, 대외적 활동영역 등에서 부부 공동의 역할수행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3) 직업관련 변인

(1) 근무시간

근무시간에 따른 남편의 역할인지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근무시간에 따른 남편의 역할수행을 살펴보면, 과도한 근무시간이 남편의 가사분담자 역할, 자녀양육의 수행을 제한한다고 하였다(Blair와 Lichter, 1991; Greenstein, 1996; 허경옥, 1997). 그러나 홍성례(1995)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근무시간은 가정내 역할수행에 거의 영향력이 없다고 하였다.

(2) 직업용통성 · 직업만족도

직업용통성에 따른 남편의 역할인지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직업용통성에 따른 역할수행을 살펴보면, 홍성례(1995)는 직업용통성이 높을수록 남편의 가정내 역할수행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허경옥(1994)의 연구에서도 남편의 직업용통성이 자녀양육 역할수행에 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미나(1994)의 연구에서는 직업용통성이 커질수록 부모 역할 참여도가 증가하다가 용통성이 아주 높은 경우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직업만족도에 따른 남편의 역할인지를 살펴보면, 자신의 직업역할에 대해서 성공적이라고 인식하는 남편이 부양자 역할을 자신의 주요역할이라고 인지하였다(Papanek, 1973; Bird, 1984에서 재인용). 한편 홍성례(1995)의 연구에 의하면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남편은 가정내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한다고 하였다.

(3) 남편의 직업

남편의 직업에 따른 역할인지를 살펴볼 때, 노동직 남편이 가사분담자 역할에서 공평한 역할인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Mason, Czajka와 Arber, 1976). 그러나 박진옥(1994)의 연구에 의하면 직업은 남편의 경제적 역할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편의 직업에 따른 역할수행을 살펴보면, Elliot(1993)는 전문직과 상급 관리직의 경우 직업은

본질적인 만족과 권력을 주기 때문에, 부인은 가정을 관리하고 남편은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통적인 역할분화가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홍성례(1995)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남편들이 근로직 · 단순노동직에 종사하는 남편보다 가정내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한다고 보고하였다.

(4) 부인의 취업유형 · 부인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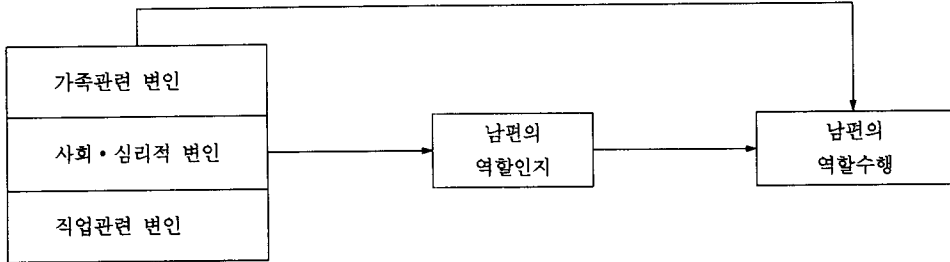
부인의 취업유형에 따른 남편의 가정내 역할인지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부인의 취업에 따른 남편의 역할수행을 살펴보면, 부인의 취업은 남편의 가사분담자 역할수행을 증가시키고 부인의 가정내 역할을 경감시켜, 부부간의 역할을 변화시킨다고 하였다(Barnett와 Baruch, 1987; Ross와 동료들, 1987; 이연숙 외, 1991; 박정숙, 1995). 그러나 Sanik(1981)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취업은 남편의 가사분담자 역할수행과 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선행연구에서도(Sanik, 1990; Shelton, 1990; Kamo, 1994; 김순주, 1994; 허경옥, 1994; 조희금, 1997)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주부의 직업에 따라 남편의 역할수행이 다르게 나타난 연구도 있다(송영숙, 1992). 즉 부인의 직업이 비전문직일 경우 남편의 가사분담자 역할수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송혜림(1988)의 연구에서는 주부가 전문관리직일 경우 남편의 협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전문직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가사노동이 수행되기 때문에 남편의 역할수행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1) 남편의 역할인지와 역할수행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2) 남편의 가족관련 변인, 사회 · 심리적 변인, 직업관련 변인은 가정내 역할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3) 남편의 가족관련 변인, 사회 · 심리적 변인, 직업관련 변인 및 역할인지는 가정내 역할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3. 용어의 정의

역할인지: 역할담당자가 어떤 역할을 자기가 수행해야 할 일이라고 스스로 지각하여 인정하며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역할수행: 역할담당자가 규범과의 일치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행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가정지향성: 남편이 가정을 우선순위로 중시하여 이를 통해 행복감을 추구하고자 하는 심리적 성향을 의미한다.

사회지지 정도: 개인이 속해 있는 가족 및 사회망을 통해 친구들, 직장동료, 가족원, 사회분위기 등이 남편 자신에게 가정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정서적·심리적 지지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

4. 측정 도구

1) 가족관련 변인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남편의 가정내 역할인지 및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가족관련 변인으로는 남편의 교육수준, 자녀수, 가정생활주기, 월소득, 가족형태, 가사조력자 유무 등의 6개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2) 사회·심리적 변인 척도

본 연구에서 가정지향성에 대한 척도는 홍성례

(1995)의 연구를 기초로 수정·보완하여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신뢰도 $\alpha = .80$). 사회지지 정도에 대한 척도는 홍성례(1995)가 작성한 4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신뢰도 $\alpha = .78$). 성역할 태도 척도로는 정진희(1990), 이윤미(1995)의 연구를 기초로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신뢰도 $\alpha = .60$). 의사소통 만족도는 정진희(1990), 이윤미(1995), 장병옥(1997)의 연구를 기초로 보완하여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신뢰도 $\alpha = .87$).

3) 직업관련 변인 척도

직업응용통성에 대한 문항은 Glass와 Camarigg(1982)의 문항을 수정하여 그 중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신뢰도 $\alpha = .81$). 직업만족도는 장미나(1994), 이화진(1995)의 작성한 문항중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신뢰도 $\alpha = .64$).

4) 남편의 가정내 역할인지 및 역할수행에 관한 척도

남편의 가정내 역할인지 및 역할수행에 관한 척도는 김순주(1994), 이윤미(1995)의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하위영역은 배우자 역할(6문항), 부모 역할(4문항), 친족 역할(5문항), 가사분담자 역할(5문항), 가계경제관리자 역할(3문항), 부양자 역할(3문항) 등 6개 영역의 총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역할인지의 신뢰도 $\alpha = .93$; 역할수행의 신뢰도 $\alpha = .91$).

5. 자료수집 및 처리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남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는 1997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본조사는 1997년 12월 10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630부를

배부하여 수집된 자료중 부실기재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50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PC+를 이용하여 요인분석·Cronbach's α ·빈도분포·백분율·단계적 중다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N=503)

변인	구 분	빈도(%)	변인	구 분	빈도(%)	
남편의 교육 수준	중졸	32 (6.4)	자녀수	1자녀	81 (16.1)	
	고졸	104(20.7)		2자녀	304(60.4)	
	전문대졸·대졸	269(53.4)		3자녀 이상	118(23.5)	
	대학원이상	98 (19.5)		계	503 (100)	
가정 생활 주기	계	503 (100)	월소득	200만원이상	81 (16.1)	
	첫자녀 확령전 시기	104(20.7)		200-300만원미만	170(33.8)	
	첫자녀 초등학교 시기	169(33.6)		300-400만원미만	140(27.8)	
	첫자녀 중·고등학교 시기	133(26.4)		400만원 이상	112(22.3)	
가족 형태	첫자녀대학교이상시기	97 (19.3)	계	503 (100)		
	계	503 (100)	가사 조력자 유무	없음	380(75.6)	
	핵가족	397(78.9)		가정부	45 (8.9)	
확대가족	106(21.1)	친·인척		78 (15.5)		
부인 취업 유형	계	503 (100)	계	503 (100)		
	부인의 직업	비취업	272(54.1)	근무 시간	8시간 이하	167(33.2)
		시간제	54 (10.7)		9-10시간 이하	215(42.7)
		전일제	177(35.2)		11시간 이상	121(24.1)
계	503 (100)	계	503 (100)			
부인의 직업	주부	272(54.1)	남편의 직업	기능·서비스직	60 (11.9)	
	기능·서비스직	104(20.7)		자영업	155(30.8)	
	사무·관리직	127(25.2)		사무직	112(22.3)	
	계	503 (100)		관리·전문직	176(35.0)	
			계	503 (100)		

2. 남편의 가정내 역할인지·역할수행의 일반적인 경향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남편의 가정내 역할인지 점수는 5점 만점에 4.02점, 역할수행 점수는 3.52점으로 역할인지가 역할수행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김순주(1994), 박진옥(1994)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표 2〉 남편의 가정내 역할인지 및 역할수행의 일반적 경향

역 할 영 역	평균(M)	표준편차(S.D)	paired t
배우자 역할	역할인지 3.97 역할수행 3.38	.67 .69	18.25***
부 모 역할	역할인지 4.19 역할수행 3.62	.08 .94	16.01***
친 족 역할	역할인지 4.08 역할수행 3.53	.68 .74	17.54***
가사분담자 역할	역할인지 3.62 역할수행 3.12	.83 .85	15.20***
가계경제관리자역할	역할인지 4.15 역할수행 3.86	.67 .72	11.74***
부양자 역할	역할인지 4.28 역할수행 3.97	.61 .65	12.07***
전 체 역할	역할인지 4.02 역할수행 3.52	.54 .54	20.09***

각각의 하위영역별로 보면, 남편의 역할인지는 대부분 3.62점~4.28점(범위 1.00~5.00)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부양자 역할, 부모 역할, 가계경제관리자 역할, 친족 역할, 배우자 역할, 가사분담자 역할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가정내 역할중에서 가장 높게 인지하는 역할은 부양자 역할(4.28)이었으며,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지한 역할은 가사분담자 역할(3.62)로 나타났다. 이러한 역할구조는 김효숙(1988), 김순주(1994), 박진옥(1994)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남편의 가정내 역할수행은 3.12점~3.97점(범위

1.00~5.00)으로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부양자 역할, 가계경제관리자 역할, 부모 역할, 친족 역할, 배우자 역할, 가사분담자 역할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성별분리에 따른 역할수행은 옥선화(1982), 신혜섭(1985), 김순주(1994), 홍성례(1995) 등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이상에서 볼 때, 아직도 우리사회에 성별분리에 따른 역할구조는 변화가 없었지만, 남편의 가정내 역할인지와 역할수행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이 부양자 역할 이외의 가정내 다양한 역할을 자신의 역할로 수용하여 점진적으로 남편의 가정내 역할수행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3. 남편의 가정내 역할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남편의 가정내 역할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은 〈표 3〉과 같다.

남편의 역할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가정지향성($\beta = .28$), 의사소통만족도($\beta = .17$), 가정생활주기($\beta = -.12$)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지향성이 높은 남편의 경우 가정생활을 중시하고 가정내 역할을 잘 수행하려는 욕구가 동기부여를 하므로써 역할인지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족간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남편은 가족원에 대한 이해와 상황적 고려를 하게 되고 가정내 역할에 대한 우선적인 합의를 이루어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는데 도움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가정생활주기의 단계가 낮을수록 남편의 가정내 역할인지가 높게 나타난 것은 가정생활주기 단계가 낮을수록 비교적 남편의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아 사회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서구의 평등주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때문으로 사료된다.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남편은 역할인지 하위영역 중 가사분담자 역할은 낮게 인지하고 부양자 역할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내 다양한 역할중 여전히 가사영역은 부인의 주된 역할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남편의 가정내 역할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변인		배우자 역할		부모 역할		친족 역할		가사분담자 역할		가계경제 관리자 역할		부양자 역할		전체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가족 관련 변인	남편의 교육수준	-.01	-.01	-.06	-.04	-.22	-.15	-.07	-.04	.05	.03	-.04	-.03	-.07	-.06
	자녀수	.02	.02	-.16	-.13**	-.10	-.09	-.18	-.14**	.03	.03	.05	.05	-.06	-.08
	가정생활주기	-.07	-.13**	-.06	-.10	-.03	-.05	-.04	-.07	-.05	-.11	-.04	-.08	-.05	-.12*
	월소득	-.01	-.02	-.03	-.04	.01	.01	-.08	-.10*	.03	.05	.03	.04	-.02	-.03
	가족형태 (확대가족)	-.02	-.01	-.01	-.01	-.01	-.01	.16	.08	-.08	-.05	-.08	-.05	.01	.01
	가사조력자 (가정부 (친·인척)	.13	.07	.11	.05	-.07	-.04	.08	.04	.07	.04	.02	.01	.05	.03
사회· 심리적 변인	가정지향성	.23	.21***	.18	.14**	.27	.24**	.33	.24***	.27	.24**	.22	.21***	.25	.28***
	사회지지 정도	.10	.10**	-.01	-.02	.12	.12**	-.01	-.01	.02	.02	-.10	-.11*	.03	.04
	성역할 태도	.05	.04	.02	.01	-.04	-.04	.25	.20***	.01	.01	-.09	-.10*	.04	.05
	의사소통만족도	.20	.23***	.22	.21***	.07	.07	.06	.05	.09	.10	.07	.08	.12	.17***
직업 관련 변인	근무시간	.06	.06	-.02	-.02	-.01	-.03	-.03	-.03	.04	.04	.08	.10*	.01	.01
	직업융통성	-.04	-.06	-.01	-.01	-.07	-.10	.01	.01	-.01	-.02	.01	.01	-.03	-.04
	직업만족도	.11	.12**	-.08	-.07	.06	.06	-.01	-.01	-.01	-.01	.09	.10*	.03	.04
	남편의 직업(자영업)	-.02	-.01	-.09	-.06	-.05	-.04	-.12	-.07	-.03	-.02	.05	.04	-.04	-.04
	(사무직)	-.12	-.07	.02	.01	.02	.02	.02	.02	-.03	-.02	.15	.11	-.02	-.02
	(관리·전문직)	-.06	-.04	-.09	-.05	-.06	-.04	-.19	-.11	.01	.01	.09	.07	-.06	-.06
	부인의 직업(기능·자영업)	.13	.08	-.08	-.04	-.13	-.08	.25	.12	-.31	-.19*	-.16	-.11	-.02	-.02
(사무·전문직)	.01	.01	-.11	-.06	-.09	-.06	.12	.06	-.16	-.11	-.11	-.08	-.05	-.04	
부인취업유형	-.01	-.02	.04	.04	.07	.09	.03	.03	.11	.15	-.06	-.08	.03	.05	
상수	1.82		3.55		2.92		2.00		2.70		3.30		2.66		
F값	8.49***		3.86***		4.56***		7.60***		3.42***		3.78***		8.09***		
R ²	.28		.15		.18		.25		.13		.15		.28		
Durbin Watson계수	1.72		1.74		1.73		1.91		1.94		1.83		1.68		

※ * P < .05 ** P < .01 *** P < .001

4. 남편의 가정내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남편의 가정내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표 4〉와 같다.

남편의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은 의사소통만족도(β = .44), 사회지지 정도(β = .15), 직업만족도(β = .13), 성역할태도(β = .08), 직업융통성(β = -.10)등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만족도가 높을수록 역할수행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이윤미(1995)와 장병욱(199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또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서로 상호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

며, 오늘날 대중매체는 인간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개인의 가치체계에 변화를 가져온다. 따라서 남편과 상호작용을 하는 주변인과 대중매체가 남편의 역할수행을 지지해 줄수록 역할수행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인 경우, 남편은 성별에 따른 역할분리를 지양하고 역할분담에 있어서 융통성을 갖게 되어 역할수행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직업만족도가 역할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남편이 직업역할을 성공적으로 인지하고 만족할수록 가정내 역할수행이 높아진다고 한 홍성례(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표 4〉 남편의 가정내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변인		배우자 역할		부모 역할		친족 역할		가사 분담자 역할		가계경제 관리자 역할		부양자 역할		전체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가족 관련 변인	남편의 교육수준	.02	.01	.05	.03	-.10	-.06	.07	.04	-.06	-.04	-.12	-.08	-.02	-.01
	자녀수	.01	.01	-.10	-.07	-.07	-.06	-.07	-.06	-.02	-.02	.04	.04	.04	.04
	가정생활주기	.02	.05	-.01	-.01	-.01	-.02	.01	.01	-.02	-.03	-.03	-.05	-.01	-.02
	월소득	-.03	-.04	.02	.02	-.01	-.02	-.08	-.10**	.02	.03	.07	.11**	-.01	-.02
	가족형태 (확대가족)	-.03	-.02	.04	.02	.07	.04	-.08	-.04	-.02	-.02	-.12	-.08	-.02	-.01
	가사조력자 (가정부) (친·인척)	-.02	-.01	.02	.01	-.08	-.04	-.02	-.01	-.03	-.02	.06	.03	-.01	-.01
		-.02	-.02	-.02	-.01	-.08	-.05	.03	.01	.03	.02	-.01	-.01	-.02	-.01
사회 · 심리적 변인	가정지향성	-.01	-.01	.07	.04	-.07	-.06	.07	.05	-.05	-.04	.05	.04	.01	.01
	사회지지 정도	.15	.15***	.18	.13***	.18	.16***	.09	.08*	.05	.05	.04	.04	.12	.15***
	성역할 태도	.07	.06	.07	.05	.06	.06	.11	.09*	.04	.04	.01	.01	.07	.08*
	의사소통만족도	.48	.51***	.44	.35***	.35	.35***	.25	.22***	.14	.14***	.14	.15***	.32	.44***
직업 관련 변인	근무시간	-.05	-.06	-.11	-.09*	-.05	-.05	-.03	-.03	.01	.01	-.04	-.05	-.04	-.06
	직업융통성	-.10	-.13***	-.11	-.11**	-.06	-.07	-.01	-.01	-.05	-.06	-.03	-.03	-.06	-.10*
	직업만족도	.11*	.11*	.10	.08	.08	.08	.12	.10**	.07	.09*	.11	.11**	.09	.13***
	남편의 직업 (자영업) (사무직)	-.04	-.03	.11	.06	.16	.10	.02	.01	.08	.05	.04	.03	.05	.04
	(관리·전문직)	.01	.01	.17	.08	.24	.14**	-.04	-.02	.20	.12**	.18	.12*	.11	.08
	부인의 직업(기능·자영업) (사무·전문직)	.05	.03	.08	.04	-.03	-.02	.04	.02	.06	.03	-.09	-.06	.03	.02
	부인취업유형	.03	.02	-.16	-.08	-.11	-.06	.04	.02	-.01	-.01	-.14	-.11	-.05	-.04
	.02	.03	.02	.02	.09	.11	.08	.08	-.05	-.06	-.04	-.05	.03	.04	
역 할 인 지	배우자 역할	.24	.23***	-.36	-.26***	-.18	-.16**	-.27	-.22***	-.06	-.06	-.09	-.09	-.11	-.13**
	부모 역할	-.08	-.09*	.80	.68***	-.10	-.11**	-.06	-.06	-.10	-.11***	-.01	-.01	.07	.10*
	친족 역할	.08	.07	-.19	-.14**	.67	.60***	-.10	-.08	-.06	-.06	-.07	-.07	.09	.11*
	가사분담자 역할	-.04	-.03	-.02	-.02	-.08	-.09	.68	.67***	-.05	-.06	.06	.08	.10	.15**
	가계경제관리자 역할	-.02	-.02	-.01	-.01	-.09	-.08	.01	.01	.83	.69***	.01	.01	.08	.10*
	부양자 역할	-.09	-.08	-.09	-.06	.02	.02	-.09	-.06	-.04	-.03	.62	.58***	.02	.03
상수	.69		.53		.91		.97		.93		.69		.83		
F값	16.61***		21.99***		13.89***		17.73***		21.24***		14.86***		16.94***		
R ²	.49		.56		.45		.51		.55		.46		.50		
Durbin Watson계수	1.99		2.01		2.02		1.94		2.08		2.02		2.05		

것이다. 부연하면 남편이 직장생활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직업환경에 만족할수록 가정내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되므로 직장과 가정이 대립관계가 아닌 상호보완하는 관계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직업융통성은 남편의 역할수행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남편의 직업융통성이 아주 높은 경우 역할이 감소한다는 장미나(1994)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부인의 취업유형은 남편의 가정내 역할수행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부인의 취업으로 인한 역할과중합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가정내 역할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선행연구(Ferree, 1990; 홍성례, 1995)들과 일치하였다.

한편 역할인지가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하위영역별로 가사분담자 역할인지($\beta = .15$),

친족 역할인지($\beta = .11$), 부모 역할인지($\beta = .10$), 가계 경제관리자 역할인지($\beta = .10$), 배우자 역할인지($\beta = -.13$) 등이 각각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배우자 역할인지는 역할수행에 부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편이 배우자 역할을 높게 인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가정내 역할수행은 전적으로 부인에게 기대하므로써 실제 수행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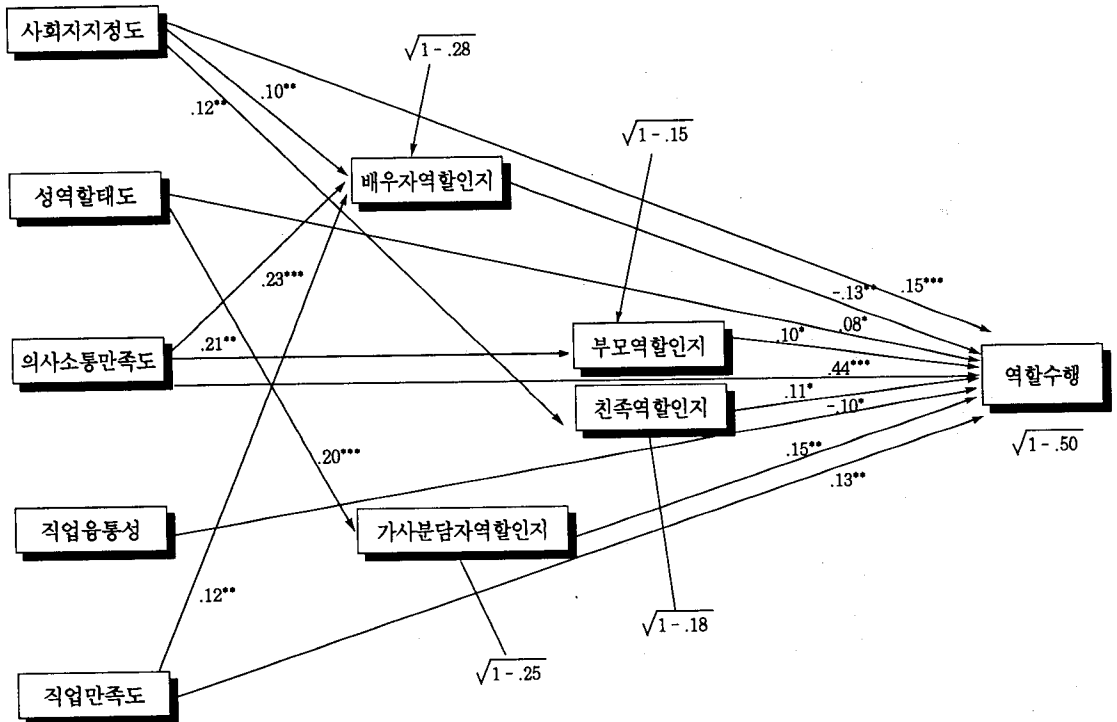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림 2>의 인과모형으로 구성하였다.

VI.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남편의 가정내 역할인지와 역할수행이 대체

로 높게 나타나 남편이 보다 다양한 역할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고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성별분업에 의한 역할구조상에는 변화가 없었다. 전업주부 남편의 경우 가정의 유일한 가계소득원으로 부양자 역할을 일차적으로 수행하게 되므로 가사분담자 역할을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업주부의 남편도 시간과 적성에 맞추어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정내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의 수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취업주부는 부양자 역할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남편은 부인과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전통적인 성역할분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정내 역할을 자신의 역할로 인지하고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는 주로 역할인지의 하위영역인 가사분담자 역할인지와 부양자 역할인지에 영향을 미쳤



<그림 2> 인과모형

는데 이러한 가정내 남편과 부인의 성별분리에 의한 역할구분은 주로 가사영역과 부양영역에서 나타나며, 나머지 역할은 부부 공동의 역할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역할수행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는 제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우리사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임에도 '남편이 가족부양을 책임진다'는 전통적 역할태도는 남편에게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1998. 3. 27). 또한 상당수의 기혼여성이 취업 전선에 나섬에 따라 부부공동 가족부양 책임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편의 가정내 역할인지는 가정지향성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정생활주기 단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편이 가정내 다양한 역할들을 자신의 역할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우선시 하는 사고와 가정내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가족원간의 원활한 대화를 통하여 가족원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인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생활주기 단계가 낮을수록 역할인지가 높게 나타났는데, 가정생활주기 단계가 낮은 가정의 남편은 대체로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아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니고 가정내 역할을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생활주기 단계가 높은 가정의 남편에 대하여는 전통적인 성역할 분업구조에 따른 역할인지를 지양시키고 새로운 가정내 역할인지를 재학습 시키는 평생 교육적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세째, 남편의 가정내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의사소통만족도, 사회지지 정도, 직업만족도, 성역할 태도, 직업융통성과 역할인지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소통만족도는 역할인지와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편의 의사소통만족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남편의 경우 사회단체나 교육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의사소통훈련보다는 직장내에서의 의사소통훈

련 교육을 실시하여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직장내 의사소통훈련을 강조한 것은 사회단체나 교육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남편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현실정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다양한 역할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를 해줄 때 남편이 가정내 역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편의 중요한 주변인이 가정내 역할수행과 관련된 조건과 협조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남편의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역할수행이 높게 나타나 직장과 가정이 상호보완하는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직업융통성은 남편의 가정내 역할수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남편은 직업스케줄이 자유로와도 그 시간을 가정생활에 보내지 않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남편들이 가정내 역할수행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끝으로 제언을 하면, 첫째, 역할에 따른 하위영역 분류가 학자마다 다르고 척도도 달라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정내 역할수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 및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일반 부부가정의 남편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후속연구에서는 편부가정, 실업자 가정, 저소득층 가정 등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권희완(1992). "부부관계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 가족의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35-70.
 김미란(1985).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관련요인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김미하(1992). "노동자 가족의 성별분업: 남성의 양육참여를 중심으로",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 한국가족론, 까치, 207-246.
- 김순주(1994). "가정내 남편의 역할수행에 대한 부부의 기대 및 평가와 결혼만족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김용호(1990). "부인취업이 남편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효숙(1988). "도시부부의 역할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박진옥(1994). "도시중산층 부부의 자기역할인지와 상호역할기대에 관한 연구-전업주부 가정을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 송영숙(1992). "취업주부의 성역할분담에 관한 연구-남편의 가사노동참여를 중심으로", 효성여대 석사학위논문
- 송혜림(1988). "남편의 가사노동 협력에 대한 주부의 기대 및 남편의 협력실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신혜섭(1985). "도시가정에서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관한 실태조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안병철(1990). "한국 남성의 가족역할: 관련 요인 및 참여 정도를 중심으로", 한양대 사회과학논총 제9집 231-251.
- 육선화(1993). 가족의 역할, 한국가족학회(편). 가족학, 서울: 하우.
- 유영주(1992). 신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이미숙(1995). "부인의 취업유무와 직종에 따른 부부의 가사 및 자녀 양육수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이성희·김태현(1989). "성역할태도에 따른 부부간 가족역할 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7권2호, 109-125.
- 이연숙·이순형·유가효·조재순(1991). "맞벌이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 연구공모과제 제1호, 한국가정관리학회.
- 이윤미(1995). "배우자에 대한 가정내 역할기대·수행평가의 차이가 부부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화진(1995).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
- 장미나(1994). "남성의 직업역할과 결혼만족도가 아버지 역할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장병옥(1997). "취업주부의 부부 역할수행·가정생활 기여도 및 만족도",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정진희(1990). "도시저소득층 비취업주부의 가정내 역할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 조희금(1997). "사무직 기혼여성부부의 생활시간구조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1호, 1-14.
- 페이스 R.엘리엇(1993). 가족사회학, 안병철·서동인 옮김.
- 한정혜(1995). "중년기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95 가정복지 세미나,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 한남제(1984). 한국도시 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 홍성래(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 Barnett R.C & Baruch K.G(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1). 29-41.
- Barnett, R.C., N.L. Marshall & J.H.Pleck(1992). "Men's Multiple Roles and Their Relationship to Men's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358-367.
- Bird, G. W. & G. A. Bird(1984). "Determinants of family task sharing: A study of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345-355.
- Blair, S. L. & Daniel T. Lichter.(1991). "Measuring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Journal of Family Issues*, 12(1), 91-113.
- Brines, J(1994). "Economic dependency,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 652-688.
- Crouter, A.C., Huston, T.L., McHale, S.M. & Perry-Jenkins, M.(1987) "Process Underlying Father Involvement in Du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431-440.
- Greenstein N.T(1996).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Interactive Effects of Wives' and Husbands' Gender Ideologies", *Journal of*

- Marriage and the Family* 58(3). 743-756.
- Kamo, Y.(1994). "Division of Household Work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Journal of Family Issues* 15(3). 348-378.
- Katzev, A.R., Warner, R.L. & Acock, A.C.(1994). "Girls or Boys?: Relationship of Child Gender to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89-100.
- Menaghan, E.G. & Parcel, T.L.(1991) "Parental Employment and Family Life: In Booth, E.(eds.)", *Contemporary Families*.
- Mederer, H.J.(1993). "Division of Labor in Two-Earner Homes: Task Accomplishment versus Household Management as Critical Variables in Perception about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133-145.
- Pleck, J.H.(1985). *Working wives, working husbands*. New York: Sage Publications.
- Presser, H.B.(1994). "Employment Schedules among dual-earner spouses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by gende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 348-364.
- Rexroat, C. & Shehan C.(1987). "The Family Life Cycle and Spouse's Time in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Ross, C.E.(1987).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Social Forces* 65(3). 816-833.
- Sanik, M. M(1990). "Parent's time use: A 1967-1986 comparison. Lifestyles: Family and Home Economics Issues", 11, 299-316.
- Shelton, B. A.(1990).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tasks: Does wife's employment status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11, 115-135.
- Voydanoff, P.(1988). "Work role characteristics, Family Structure Demands, and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749-761.
- Wheeler, C.L. & Arvey, R.D(1981)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the famil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1), 10-20.